

■ 법률 칼럼

법인명 변경 절차

얼마 전 필자가 속해 있는 한 전문직 협회에서 협회의 명칭을 바꾸는 게 어떻겠냐는 인건이 상정되었다. 찬성하는 의견이 있는 동시에 복잡하고 번거로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의견이 함께 나왔다. 전문직 협회의 경우 일종의 법인 회사로 주정부에 등록되어 있고, 비영리 형태의 단체로서 국세청(IRS)으로부터 면세 자격을 인정받은 상태로 수년 간 운영되어 오던 상황이었다. 홍보 효과, 기업 사명의 변화, 혹은 유사업체와의 혼란을 최소화 하자는 취지를 비롯해 법적으로 등록된 사업체나 단체의 이름을 바꾸는 이유는 다양하다. 오늘은 캘리포니아에서의 상호명을 변경하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한다.

일단 회사의 이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희망하는 상호명이 이미 존재하는지 사용 가능한지의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한다. 회사가 등록되어 있는 해당 주정부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Business Entity Search" 를 통해 1차적으로 살펴보고, 정확히 하고 싶다면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Name Availability Inquiry Letter" 양식을 통해 알아볼 수도 있다. 또한 만약 새로운 상호명으로 웹사이트를 만들 계획이라면 검색엔진이나 도메인 판매 사이트를 통해서 원하는 도메인 이름이 존재하는지 등의 사전 연구가 필요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미국 특허청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특정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역시 확인해야 한다.

새로운 상호명이 결정되면 필수 서류들이 변경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내부적으로는 이사회나 그 밖의 경영자들의 이러한 결정을 문서화 하는 정관의 변경 등이 있고, 외부적으로는 주 정부를 통한 법인登記의 변경이 있겠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주 정부에 매년 제출하는 법인의 연례보고서(Statement of Information)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Certificate of Amendment" 를 추가로 제출하여 상호명 변경을 신고하게 된다. 주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상호명 변경이 접수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교부

해 주는데,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다. 간혹 유사한 상호명이 이미 존재할 경우 등기 신청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는데, 또 간혹 동일한 상호명이 이미 존재해도 해당 상호명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주정부로부터 법인 자격을 suspend(정간) 당한 상태라면 사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그 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부기관은 물론 국세청이다. 사업체의 형태에 따라 상호명 변경을 신고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연례 세금보고를 통해서 하거나 직접 편지를 보내는 형식으로 할 수도 있다. 간혹 상호명 변경과 함께 사업체의 성격이 변하는 경우 (예를 들어 합명회사가 자영업의 형태로 바뀌거나 법인회사로 바뀌는 경우 등등) 고용주번호(EIN) 자체를 새로 발급받아야 할 수도 있다. 주정부와 지자체에서 특정 사업체에 해당되는 면허세나 허가증 등을 관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 기관들에 신고가 끝났다고 해서 상호명 변경이 완벽하게 처리된 것은 아니다. 기존에 거래하던 은행, 우체국, 그 외에 계약관계에 놓여 있는 업체들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며 필요 시 문서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자나 회사가 법적으로 등록된 이름이 아닌 또 다른 이름, 즉 DBA(Doing Business As, 혹은 Fictitious Business Name이라고도 한다)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면 해당 County에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 회사명을 바꾸고 싶지 않다면 위에 나열된 절차들을 생략하고 원래의 상호명을 법적으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DBA상호를 동시에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방법도 있다.

이지연 변호사
(Jeeny J. Lee, Esq.)
JL Bridge Legal Consulting 대표변호사
info@jlbridge.com
www.jlbridge.com
(949) 535-5275



■ 건강 칼럼

세포가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다

이 세상에는 수천 가지의 질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치료 또한 수천 가지가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처방된 약들은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고 약기운이 있는 동안 잠시 증상을 완화시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약의 세기가 더해지거나 약에 대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약을 첨가합니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약으로 다른 질병을 키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 레이몬드 프란시스에 의하면 병에 걸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포하나하나가 건강하여 그 역할을 잘 하면 결과적으로 건강하게 됩니다. 반대로 세포가 그 역할을 못하게 되고, 건강하지 않은 세포가 점점 많아지면 결국 우리의 몸은 스스로를 지킬 수 없게 됩니다. 영양을 공급하고, 결합이 있는 곳을 고치고, 필요 없는 것은 배출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에는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세포, 거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사람의 인체는 세포에서 시작하여 조직이 되고, 조직은 기관이 되고, 기관은 계통을 이룹니다. 하나의 세포가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더 많은 세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 그 불균형이 지속될 때 질병으로 발전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그렇듯이 대수롭지 않게 시작 합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면, 항상 피곤하던가, 허리가 결릴 수도 있습니다. 눈이 침침해지기도 하고 무릎이 아프기도 합니다. 바빠 살다 보면 이런 초기의 질병 증상을 피곤해서 그렇겠지, 감기겠지 하고 넘기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점점 더 많은 세포와 기관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어 만성 질환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심한 경우엔 다시 복구되기 힘들 지경

에 이르는데 이를 치료할 수 없는 병 즉, 불치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세포하나하나를 어떻게 건강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해답은 간단합니다. 세포가 필요한 영양분을 제공하고 세포에게 해가 되는 독소를 제거해주면 됩니다. 각각의 세포는 각자 맡은 임무가 있는데 이런 각자의 세포가 함께 협동하여 서로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효과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우리의 몸의 상태는 최고의 건강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는가, 잠은 잘 자는가, 숨쉬는 공기는 맑고 깨끗한가, 매일 마시는 물은 오염되지 않았는가, 하루에 어떤 운동을 얼마나 하는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등 우리의 생활방식이 우리의 건강을 전적으로 좌우합니다. 프란시스 박사는 '우리의 질병이 박테리아나 세균 등의 전염병의 존재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세포가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주지 못하고 독소를 없애주지 못했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져서 제 기능을 못해서 생긴다' 라고 했습니다. 각각의 세포가 건강하면 박테리아, 세균, 독소 등의 침입은 얼마든지 잘 막아낼 수 있기 때문에 만성 질병에 걸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군대가 잘 먹고 훈련이 되어 정신 상태가 건강하면 어떠한 적군도 무찌를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Dr. Sung Hye Yi
President & COO
Anti-Fragility Health
www.anti-fragilityhealth.com
TEL. (714) 864-3730
1020 S. Anaheim Blvd, #101
Anaheim, CA 92805



www.isemusa.com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PREMIER TAX GROUP

- 세금보고
- 연체세금 해결

- 법인설립
- 세무감사대행

- 해외자산보고
- 상속, 증여세금보고

방문상담 가능

대표 세무사 **이세진(Skyler S. Lee)**
공인세무사 (E.A.)
(전) 한국 삼일회계법인 / PWC 근무

Office **714.530.0030**
714.345.0762

5730 Beach Blvd, Ste. 202 ~ 203, Buena Park, CA 90621
*Garden Grove에서 Buena Park로 사무실 이전하였습니다
info@isemusa.com / taxcapital@gmail.com